

# KP케미칼, TPA 플랜트 “화재”

## 배관파열로 수억원 피해 ... TPA 수급에 차질 발생할 듯

24일 오후 11시23분 울산시 남구 상개동 울산석유화학공단 KP케미칼(대표 기준)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억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.

이번 화재는 폴리에스터 섬유 원료인 TPA(Purified Terephthalic Acid) 생산 공정인 높이 70m, 폭 30여m의 플랜트에서 배관이 파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.

화재가 발생하자 울산소방본부와 남부소방서, 공단소방대 등에서 소방차 30여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배관 내 연료가 계속 타면서 불길이 잡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.

회사 관계자는 "TPA 플랜트의 15m 지점에서 갑자기 '씨-익'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"고 말했다.

공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지만 공정의 자동화로 화재 현장에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2/25>